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이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 영 주[†]

한경대학교 / 조교수

본 연구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를 각각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으로 구분하고,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성차를 살펴 보았다. 남녀 성인 572명의 자료를 독립표본 *t*-검정, 상관분석, 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용서와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은 자기용서와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련성도 자기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련성에 비해서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용서는 부정반응과 긍정반응 모두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자기용서는 긍정반응만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을 설명하였다. 넷째, 배우자용서는 관계만족을 완전매개 하여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자기용서는 관계만족을 부분매개 하여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용서가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유의하였는데, 배우자용서 부정반응과 삶의만족 간의 부적 관련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연구의 학문적 의의, 상담 실체에 대한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배우자용서, 자기용서, 부정반응, 긍정반응, 관계만족, 삶의만족, 성차

[†] 교신저자 : 조영주, 한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Tel : 031-670-5414, E-mail : yjcho@hknu.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부부는 삶의 다양한 영역을 함께 공유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서적 취약점을 서로에게 노출하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오영희, 2011; Busby, Day, & Olsen, 2019). 이러한 상처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정신건강 수준이 저하되고 부부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오영희, 2011). 부부관계에서 용서는 상호작용에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만족스러운 결혼관계를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Enright, and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Woldarsky Meneses, & Greenberg, 2014; Zuccarini, Johnson, Dalglish, & Makinen, 2013).

용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용서 경향성을 의미하는 특질용서나 단일 사건에 대한 상황특수적 용서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본 연구는 부부관계에서의 이자관계 용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관계에서 용서는 잘못을 한 배우자나 잘못을 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 사고 및 행동이 줄어들고 긍정적 감정, 사고 및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Fincham, Hall, & Beach, 2006; Paleari, Regalia, & Fincham., 2009; Pelucchi, Paleari, Regalia, & Fincham, 2013). 부부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의 용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배우자를 용서하는 배우자용서와 함께 배우자에게 잘못을 한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용서를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용서를 가해자에 대한 부정반응 감소와 긍정반응 증가로 개념화한다(Enright, &

Fitzgibbons, 2011; Gordon, & Baucom, 2003; 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 또한 연구자들은 특정 시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낮은 부정반응과 높은 긍정반응으로 용서를 살펴보기도 하였다(Fincham et al., 2006; Paleari et al., 2009; Pelucchi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용서를 가해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부정반응과 높은 수준의 긍정반응으로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을 통합하여 연구하였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용서와 다른 변인 간의 관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의 상대적 기여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letka, & Mróz, 2018; Rye, Folck, Heim, Olszewski, & Traina,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을 구분하여 부부관계만족 및 삶의만족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는 부부관계만족과 삶의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부관계에서 잘못을 한 배우자를 용서할 때 부정적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긍정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관계의 질과 삶의만족을 회복할 수 있다(강주희, 박종효, 2014; Pelucchi et al., 2013). 또한 배우자에게 잘못을 한 자신을 용서할 때, 죄책감, 수치심 및 낮아진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고 배우자와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김병직, 이동귀, 김지근, 김윤상, 황정은, 2013). 용서는 대인관계 과정이면서 개인내적 과정인데, Fincham et al.(2006)은 배우자용서에는 대인관계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고 자기용서에는 개인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인관계적 요소가 상대

적으로 큰 배우자용서는 부부관계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인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큰 자기용서는 삶의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만족과 삶의만족 각각에 대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의 상대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근거하여(Myers, 2000), 부부관계에서의 용서가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용서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성차는 비일관적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부부관계라는 이차관계에서의 용서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부부상담에서 용서개입 활용의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배우자용서는 일반적인 타인용서의 정의를 적용하여 개념화할 수 있다. 타인용서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을 때 회피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부정적 태도를 극복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Enright, & Fitzgibbons, 2011; Gordon, & Baucom, 2003; McCullough et al., 1997). Enright와 Fitzgibbons(2011)는 용서를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 생각 및 행동을 줄이고 긍정적 감정, 생각 및 행동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Gordon과 Baucom(2003)은 용서는 잘못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부터 회복하고 연민을 가지며 복수심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McCullough et al.(1997)은 동기의 관점에서 용서를 정의하였는데, 그들은 가해자와

접촉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 동기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보복 동기가 화해와 선의의 동기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용서를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보고 가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강조하면서(Gordon et al., 2020), 용서가 부정적 동기, 생각, 감정, 행동의 감소와 긍정적 동기, 생각, 감정, 행동의 증가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다른 연구자들은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의 변화보다는 특정 시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Rye et al.(2001)은 용서를 부정반응부재와 긍정반응으로 개념화하였다. Fincham, Beach와 Davila(2004)는 배우자용서가 보복과 자비를 포함한다고 하였고, Paleari et al.(2009)은 용서가 분노-회피와 자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의 입장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용서를 가해자에 대한 부정반응이 낮고 긍정반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자 하며,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용서의 부정반응 수준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긍정반응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은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Kaletka, & Mróz, 2018; Rye et al., 2001; Rye et al., 2004). Rye et al.(2004)은 이혼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 배우자에 대한 용서의 부정반응부재와 긍정반응 간의 상관인 .53이며, 부정반응의 부재는 우울, 상태분노, 특질분노, 종교적 안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긍정반응은 이들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Rye et al.(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용서의 부정반응부재와 긍정반응 간의 상관은 .41이며, 부정반

응 부재는 긍정반응에 비해서 실존적 안녕과 관련성이 크고, 긍정반응은 부정반응부재에 비해서 종교적 안녕과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Kaleta와 Mróz(2018)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대 성인의 삶의만족은 용서의 부정반응과 유의한 관련이 있고 긍정반응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반면, 50대 이상 성인의 삶의만족은 용서의 부정반응과 유의한 관련이 없고 긍정반응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은 심리적 안녕과 삶의만족 등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부부 용서와 다른 변인 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용서는 특정되는 상황의 수준 따라서 특질 용서, 단일 잘못에 대한 용서 및 이자관계용서로 구분할 수 있다(McCullough, Hoyt, & Rachel, 2000). 특질용서는 개인의 용서 경향성으로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서 드러나며, 단일 잘못에 대한 용서는 특정 관계에서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를 말한다. 한편, 이자관계용서는 특정 파트너와의 관계에서의 용서를 의미한다(McCullough et al., 2000). 일반적인 용서 경향성과 배우자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Fincham, May, & Sanchez-Gonzalez, 2015), 부부관계에서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자관계 용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용서와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잘못을 잘 용서할수록 관계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할 때 건설적 의사소통이나 공감을 주고 받는 것과 같이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동시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나 폭력과 같이 부정적 상호작용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관계만족이 회복될 수 있다(Braithwaite, Selby, & Fincham, 2011). 나아가서,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용서를 하는 파트너의 자비로운 생각과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잘못을 한 배우자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관계의 질과 만족을 증진할 수 있다(Russell, Baker, McNulty, & Overall, 2018). 선행연구에서는 부부를 포함한 커플관계에서 파트너용서가 부부관계적응 및 관계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곽민하, 전해성, 2016; 서정선, 신희천, 2007; Braitwaite et al., 2011; Kachadourian, Fincham, & Davila, 2004; Roberts, Jaurequi, Kimmes, & Selice, 2021).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배우자용서의 부정반응 요소 및 긍정반응 요소와 관계만족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배우자용서를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으로 구분하였을 때, 보복, 분노, 회피와 같은 부정반응은 결혼만족과 부적 관련이 있으며 자비와 같은 긍정반응은 결혼만족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Rye et al.(2001)은 용서의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부적용서가 정적용서에 비해서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회피나 비난과 같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용서의 부정반응이 선의나 신뢰와 같은 용서의 긍정반응에 비해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명백하게 전달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Fincham et al., 2006; Gordon, Hughes, Tomcik, Dixon, & Litzinger, 2009). Gordon et al.(2009)은 9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용서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용서의 부정반응이 긍정반응에 비해서 관계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Fincham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보복이 자비에 비해서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에는 보복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고 자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만 유의하였는데, 그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Paleari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관계의 질에 대한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의 관련성의 크기는 유사하였다. Pelucchi, Paleari, Regalia와 Fincham(2015)의 연구에서는 동거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파트너 용서를 용서하지못함과 용서함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용서하지못함은 관계만족과 부적적으로 관련이 있고, 용서함은 관계만족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용서의 부정반응이 긍정반응에 비해서 관계만족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이와 다른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에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부부관계에서 잘못을 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용서는 갈등과 분노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성숙한 방식으로 배우자를 용서함으로써 개인적인 강점과 역량을 키울 수 있고(서정선, 신희천, 2007),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다. 박종효(2012)는 용서는 피해자가 생존자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용서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성

숙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 비난과 같은 부정적 사고, 복수하거나 처벌하려는 행동으로 부정적 심리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는 개인의 삶의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다. Paleari et al.(2009)은 배우자용서가 삶의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분노-회피는 삶의만족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자비는 삶의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McCullough, Bellah, Kilpatrick과 Johnson(2001)의 연구에서는 용서의 부정반응인 회피 및 보복은 삶의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용서 경향성과 삶의만족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박종효, 2012; 정주리, 김은영, 2019; Bono, McCullough, & Root, 2008), 배우자용서를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으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적고 그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배우자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배우자에게 잘못된 자신에 대한 자기용서도 부부관계 용서의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 자기용서도 일반적인 자기용서의 개념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에 더하여 가해자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용서에도 관심을 확장하였다(Enright et al., 1996; Hall, & Fincham, 2005; Thompson et al., 2005). 타인을 용서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경향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기용서는 타인용서와는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김병직 등, 2013; 박종효, 2012). 자기용서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 수용 및 책임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타인용서와 다르지만, 타인용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고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nright et al.(1996)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 감정, 행동을 줄이며 자신에 대해 연민, 자비,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사하게 Thompson et al.(2005)은 자기용서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병직 등(2013)과 박종효와 김수경(2017)은 이에 더하여 잘못의 개선과 보상행동을 강조하였다. Pelucchi, Regalia, Palcari와 Fincham(2017)은 자기용서를 주도적이고 의미에 초점을 맞춘 대처 전략으로 보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자기 자비를 핵심 요인으로 보았다. 자기용서는 타인용서와 마찬가지로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을 포함하는데, 자기용서에서도 용서의 부정반응의 감소가 반드시 긍정반응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Pelucchi et al., 2013).

자기용서는 수준별로는 특질용서와 상태용서를 포함한다. 자기용서에 관한 많은 연구는 특질용서에 초점을 맞추는데(김병직 등, 2013; Thompson et al., 2005), 용서의 대인관계적 측면과 개인내적 측면 중에서 자기용서는 개인내적 측면과 관련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구혜진, 서미아, 2017; Hall, & Fincham, 2005). 그러나 자기용서 경향성이 각기 다른 대상과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은 타인에게 상처를 준 특정 사건에 대한 생각, 감정 및 행동을 포함하

는 상태 자기용서를 살펴보기도 하였다(Wohl, DeShea, & Wakinney, 2008). 이에 더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의 자기용서도 연구하였다(Kachadourian et al., 2004; Pelucchi et al., 2013; Pelucchi et al., 2015). 기술한 바와 같이 자기용서를 개인내적 특질로 보는 입장이 우세했기 때문에 상태자기용서나 이자관계 자기용서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부족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의 자기용서를 살펴보자 한다.

배우자용서가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부부관계에서 자기용서도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용서는 자신의 잘못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과 잘못의 원인과 동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Pelucchi et al., 2017). 자기용서를 할 수 없을 때 죄책감이나 자기 파괴적인 생각에 몰두하여 배우자에게서 거리를 두게 되고 관계에서 철회함으로써 관계가 손상되는 반면, 자기용서를 할 수 있을 때 부부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Fincham et al., 2006). 이에 더하여, 자기용서를 할 때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더 적극적으로 보상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김병직 등, 2013; 박종효, 김수경, 2017). 김수경과 박종효(2020)은 자기용서를 함으로써 화해소망, 타인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대인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기용서에서도 부정반응이 긍정반응에 비해서 관계만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Pelucchi et al.(2013)의 연구에서 파트너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기용

서를 용서함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구분하였을 때, 자기용서함은 자신의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자기용서못함은 자신의 관계만족 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관계만족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유사하게, Pelucchi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파트너에게 잘못된 사건에 대한 자기용서함은 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자기용서못함은 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자기용서는 손상된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도 한다(박종효, 김수경, 2017; Davis et al., 2015). 자기용서를 하지 못할 때에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배소현 2010; Hall, & Fincham, 2005). 한편 자기용서를 할 때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안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이를 성숙과 성장의 과정으로 의미 부여함으로써(김수경, 박종효, 2020),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자기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계를 연구했지만(김병직 등, 2013; 박종효, 2012; 박종효, 김수경, 2017; 정주리, 김은영, 2019; Davis et al., 2015), 이자관계에서의 자기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인 자기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고려하면 부부관계에서의 자기용서와 삶의만족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배우자용서는 관계만족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자기용서는 삶의만족과 더 밀접한 관련성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용서는 대인관계적 특성과 심리내적 특성을 모두 가지는데, 타인용서는 대인관계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자기용서는 심리내적 요소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구혜진, 서미아, 2017; Fincham et al., 2006). Hall과 Fincham(2005)은 자기용서와 타인용서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타인용서의 결과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나며 실패의 심각성은 보통인 반면, 자기용서의 결과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실패의 심각성은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는 타인용서의 결과는 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면, 자기용서의 결과는 삶 전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커플을 대상으로 한 Pelucchi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기용서에 비해서 잘못을 한 파트너를 용서하는 파트너 용서가 관계만족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대한 배우자용서 및 자기용서의 상대적 기여도는 메타분석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타인용서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Fehr, Gelfand와 Nag (2010)은 타인용서는 관계만족과 .36의 상관이 있고,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와는 각각 .12와 -.28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자기용서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Davis et al. (2015)은 자기용서는 관계의 질과 .07의 유의하지만 작은 크기의 상관이 있었고, 삶의만족과는 .43의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대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가 관계만

족 및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용서는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각각 영향 미치기도 하지만, 관계만족을 통해서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대인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Myers, 2000), 용서가 건강한 관계를 매개로 일반적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Karrenmanas, & Van Lange, 2004). 부부관계가 중요한 대인관계 영역임을 고려할 때, 용서를 통해서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관계만족이 증진되며 나아가서 삶의만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임주영(2020)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부부관계의 질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부부관계를 매개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용서에서 성차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Miller, Worthington과 McDaniel (2008)는 메타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용서를 더 잘한다고 보고한 반면, 박종효(2012)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타인용서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용서에서 유의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오영희, 2011; Fehr et al., 2010). 한편 자기용서에서 성차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박종효, 2012; 박종효, 김수경, 2017; Davis et al., 2015). 용서와 대인관계 및 삶의만족 간의 관련성에서는 성차가 보고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성의 용서가 남성의 용서에 비해서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배미자, 2003; 서정선, 신희천, 2007;

Busby et al., 2019; Davis et al., 2015; Fincha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용서 및 용서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 용서에 관한 연구는 대개 배우자용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용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를 하나의 연구에 포함하여 관계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부관계 용서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장하고 부부상담에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용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부부용서에서 그 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며, 이들 관계에서 성차에 관한 연구도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는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을 구분하여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가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용서에 대한 이해를 명료화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배우자용서와 관계만족 간의 관계는 자기용서와 관계만족 간의 관계보다 더 클 것이다.

연구가설 2. 자기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계는 배우자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계에 비해서 더 클 것이다.

연구가설 3. 용서의 부정반응이 긍정반응에

비해서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과 더 큰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는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1. 배우자용서 및 자기용서에 차이가 있는가? 용서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참여의 익명성 등에 관한 설명문을 제시하였고, 설명을 읽고 설문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설문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총 572명 중 남성이 283명(49.5%), 여성이 289명(50.5%)이었다. 남성의 나이는 평균 46.05세(표준편차: 12.67, 범위: 25, 69)였고, 결혼기간은 평균 201.48개월(표준편차: 151.19, 범위: 4, 575)이었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46명(16.3%)이 자녀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237명(83.7%)이 자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풀타임직장인 237명(83.7%), 파트타임직장인 15명(5.3%), 무직 14명(4.9%), 그 외 17명(6.0%)이었다. 여성의 나이는 평균 46.08세(표준편차: 12.74, 범위: 23, 69)였고, 결혼기간은 평균 209.44개월(표준편차: 151.19, 범위: 2, 538)이었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71명(24.6%)이 자녀가 없었고, 218명(75.4%)이 자녀가 있었다. 직업별로는 풀타임직장인 140명(48.4%), 파트타임직장인

26명(9%), 전업주부 104명(36.0%), 학생 2명(0.7%), 무직 1명(0.3%), 그 외 16명(5.5%)이었다.

측정도구

Rye 용서척도(Forgiveness Scale)

자신에게 잘못된 배우자를 용서하는 배우자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Rye et al.(200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용서척도를 정성진(2011)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Rye et al.(2001)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잘못을 한 특정 대상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는 용서척도를 개발하였다. Rye 용서척도는 2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부정반응부재와 긍정반응이다. 부정반응부재는 잘못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생각, 감정 및 행동이 없는 것을 말하며, 긍정반응은 잘못된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Rye et al.(2001)은 부정반응부재 하위척도에 포함된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내게 잘못된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쓴다’와 같은 문항에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응답하도록 하고, 이를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반응부재의 하위척도에 포함되는 문항을 역채점하지 않고 부정반응 그대로 사용하였고, 용서의 부정반응 점수가 낮을수록 용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기 위해서 각 문항에서 ‘그 사람’으로 표현된 것을 ‘남편/아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Rye 용서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부정반응을 측정하는 10 문항과 가해자에 대한 긍정반응을 측정하는 5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15개의 문항 중 전체-문항 상관인 .3이하로 나타나는 3개 문항은 제외하고 12개의 문항만 사용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배우자용서의 부정반응 문항 중에서는 ‘남편/아내에 대한 분노를 잊을 수 있었다’와 ‘남편/아내의 부당한 가해로 생긴 정서적 상처가 많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한다’와 긍정반응 중에서는 ‘남편/아내를 동정한다’이다. Rye et al.(2001)은 부정반응부재와 긍정반응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각각 .86과 .85로 보고하였고, 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76과 .76이라고 보고하였다. 정성진(2011)의 연구에서는 부정반응부재와 긍정반응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3과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용서 부정반응과 배우자용서 긍정반응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2와 .72였다.

상태자기용서척도(State Self-Forgiveness Scale)

배우자에게 잘못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Wohl et al.(2008)이 개발하고 배소현(2010)이 번안한 상태자기용서척도를 활용하였다. Wohl et al.(2008)은 자신이 누군가에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사건을 떠올릴 때 드는 생각과 감정을 측정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척도는 17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자기용서 감정/행동 및 자기용서 신념의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분되었다. 배소현(2010)이 한국어판으로 타당화한

연구에서는 Wohl et al.(2008)의 연구와는 다른 두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그는 이를 각각 자기 처벌적 상태와 자기 수용적 상태로 이름 붙였다. 자기 처벌적 상태는 자신에게 처벌적이고 파괴적인 느낌, 사고, 행동을 포함하며, 자기 수용적 상태는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판 상태자기용서척도는 전체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처벌적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이 9문항, 자기 수용적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이 7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원척도에서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건을 떠올리면서 응답하라고 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용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잘못된 사건을 떠올리면서 응답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배우자용서와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배소현(2010)의 자기 처벌적 상태를 자기용서 부정반응으로, 자기 수용적 상태를 자기용서 긍정반응으로 재명명하였다. 배소현(2010)의 연구에서 자기 처벌적 상태(자기용서 부정반응)와 자기 수용적 상태(자기용서 긍정반응)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6과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자기용서 부정반응과 자기용서 긍정반응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과 .92였다.

관계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부부관계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Spanier (1976)의 관계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이민식과 김중술(1996)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조현, 최승미, 오현주, 권정혜(2011)가 단축형으로 타당화한 DAS-10을 사용하였

다. DAS-10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10개 문항 중 부정문항인 5개 문항을 역채점 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응과 관계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조현 등(2011)의 연구에서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삶의만족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삶의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만족척도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삶의만족척도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응답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구재선(2019)의 연구에서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자료분석

우선 극단치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Mahalanobis 거리를 활용하여 극단치를 확인하였다. 수집된 573명의 자료 중 연속선 상에 있지 않은 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7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분포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한 두 차례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1에는 결혼기간을 투입하여 결혼기간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단계2에는 용서의 4개 요소(배우자용서 부정반응,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자기용서 부정반응, 자기용서 긍정반응)를 투입하여 용서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용서의 고유효과를 확인하였다. 단계3에서는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와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및 성별과 용서의 4개 요소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항을 만들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주요 변인의 값은 평균중심화 하였다(서영석, 2010).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 구체적인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검정을 실시하였다(Preacher, Curran, & Bauer, 2006). 마지막으로 용서가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간접효과를 산출하고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결 과

표 1에 제시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왜도는 2 이하였고 첨도는 7 이하였기 때문에, 변인들이 정상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주요변인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차는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여성이 더 높았고($t(571)=-2.63, p<.01$), 자기용서 부정반응은 남성이 더 높았

표 1. 용서,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의 기술 통계치 및 성차

	전체 (N=572)			남성 (n=283)	여성 (n=289)	t
	M (SD)	왜도	첨도	M (SD)	M (SD)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1.89 (.82)	.80	-.12	1.80 (.77)	1.98 (.86)	-2.63**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3.74 (.84)	-.54	.43	3.74 (.84)	3.74 (.84)	.00
자기용서 부정반응	1.43 (.53)	1.50	2.05	1.53 (.56)	1.33 (.48)	4.58***
자기용서 긍정반응	2.44 (.77)	.15	-.41	2.42 (.77)	2.47 (.76)	-.74
관계만족	3.63 (.81)	-.08	-.48	3.73 (.81)	3.53 (.79)	3.05**
삶의만족	4.01 (1.31)	-.06	-.29	4.00 (1.36)	4.02 (1.26)	-.27

주. ** $p < .01$, *** $p < .001$

으며($t(571)=4.59, p < .001$), 관계만족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71)=3.05, p < .001$). 한편 용서의 긍정반응과 삶의만족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ps > .05$).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결혼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이 높았고($r=.17, p < .01$),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은 낮았다($r=-.26, p < .001; r=-.17, p < .001$). 결혼기간이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의 분석에서

는 결혼기간을 통제하였다.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배우자용서 긍정반응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r=-.49, p < .001$), 자기용서 부정반응도 자기용서 긍정반응과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r=-.22, p < .001$). 이들의 관련성이 유의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에서 부정반응이 감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반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용서는 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1. 결혼기간	-						
2.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17**	-					
3.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05	-.49***	-				
4. 자기용서 부정반응	-.03	.35***	-.14**	-			
5. 자기용서 긍정반응	.01	-.23***	.30***	-.22***	-		
6. 관계만족	-.26***	-.67***	.50**	-.20***	.31***	-	
7. 삶의만족	-.17***	-.38***	.30***	-.14**	.29***	.49***	-

주. N=572. ** $p < .01$, *** $p < .001$.

표 3.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대한 용서와 성별의 회귀분석 결과

준거 변인	단계	예측변인	R ²	df	F	B	SE	t	sr ²	
관계 만족	단계 1	결혼기간	.07	(1,570)	40.92 ^{***}					
	단계 2	용서	.47	(4,566)	140.33 ^{**}					
	단계 3	성별의 효과	.01	(5,561)	2.74 [*]					
		(상수)				3.59	.18			
		결혼기간				.00	.00	-.16	-5.52 ^{***}	.02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51	.04	-.52	-14.32 ^{***}	.17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20	.03	.21	6.11 ^{***}	.03
		자기용서 부정반응				.06	.05	.04	1.12	.00
		자기용서 긍정반응				.15	.03	.14	4.52 ^{***}	.02
		성별				-.05	.02	-.06	-2.12 [*]	.00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x 성별				.07	.04	.07	1.86	.00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x 성별				.00	.03	.00	-0.01	.00
	삶의 만족	단계 1	결혼기간	.03	(1,570)	17.62 ^{***}				
단계 2		용서	.18	(4,566)	32.66 ^{***}					
단계 3		성별의 효과	.01	(5,561)	1.57					
		(상수)				3.47	.37			
		결혼기간				.00	.00	-.12	-3.08 ^{**}	.01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42	.08	-.26	-5.53 ^{***}	.04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17	.07	.11	2.40 [*]	.01
		자기용서 부정반응				.07	.10	.03	0.65	.00
		자기용서 긍정반응				.35	.07	.20	5.08 ^{***}	.04
		성별				.05	.05	.04	1.06	.00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x 성별				-.17	.07	-.11	-2.28 ^{**}	.01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x 성별				-.09	.07	-.06	-1.28	.00
		자기용서 부정반응 x 성별				.20	.10	.08	1.89	.00
	자기용서 긍정반응 x 성별				.01	.07	.00	0.10	.00	

주. N=572.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은 효과코딩 함 (남성=-1; 여성=1). 회귀계수 값은 단계 3을 포함한 최종모형에서의 값임.

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용서는 관계만족과 큰 크기의 상관(배우자용서 부정반응: $r=-.67, p<.001$;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r=.50, p<.001$), 자기용서는 관계만족과 각각 작은 크기에서 중간 크기의 상관이 있었다(자기용서 부정반응: $r=-.20, p<.001$; 자기용서 긍정반응: $r=.31, p<.001$). 용서는 삶의만족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관련성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용서와 관계만족과의 관련성에 비해서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용서는 삶의만족과 중간 크기의 상관이 있었고(배우자용서 부정반응: $r=-.39, p<.001$;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r=.30, p<.001$), 자기용서는 삶의만족과 작은 크기의 상관이 있었다(자기용서 부정반응: $r=-.14, p<.001$; 자기용서 긍정반응: $r=.29, p<.001$).

관계만족에 대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의 상대적 효과 크기(연구가설1), 삶의만족에 대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의 상대적 효과 크기(연구가설2),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대한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의 상대적 효과크기(연구가설3) 및 이들 관계에서 성차(연구문제1)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관계만족을 준거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기간은 관계만족을 7% 설명하였고($F(1,570)=40.92, p<.001$), 결혼기간을 통제한 후에 용서는 관계만족을 47% 설명하였다($F(4,566)=140.33, p<.001$). 각각의 용서의 고유효과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자신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관계만족을 17% 설명하였고($=-.52, t=-14.32, p<.001$), 배우자용서 긍정반응은 관계만족을 3% 설명하였다($=.21, t=6.11, p<.001$). 자신이 배우자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용

서 부정반응은 관계만족을 설명하지 못하였고($=.04, t=1.12, p>.05$), 자기용서 긍정반응은 관계만족을 2% 설명하였다($=.14, t=4.52, p<.001$). 다시 말하면 자기용서에 비해서 배우자용서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으며, 배우자용서 중에는 부정반응의 영향이 더 컸고, 자기용서 중에는 긍정반응의 영향이 더 컸다. 성별의 효과를 살펴보면 관계만족에 대한 성별의 효과는 유의했으나($F(5,561)=2.74, p<.05$),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06, t=-2.12, p<.05$), 용서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05$).

표 3의 하단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삶의만족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결혼기간이 삶의만족을 3% 설명하였고($F(1,570)=17.62, p<.001$), 결혼기간을 통제한 후에 용서는 삶의만족을 18% 설명하였다($F(4,566)=32.66, p<.001$). 관계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용서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용서가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의 고유효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삶의만족을 4% 설명하였고($=-.26, t=-5.53, p<.001$), 배우자용서 긍정반응은 삶의만족을 1% 설명하였다($=.11, t=2.40, p<.05$). 자기용서 부정반응은 삶의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고($=.03, t=0.65, p>.05$), 자기용서 긍정반응은 삶의만족을 4% 설명하였다($=.14, t=4.52, p<.001$). 즉 자기용서가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배우자용서가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의 상대적 효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용서 중에는 긍정반응보다 부정반응의 영향이 더 컸고, 자기용서 중에는 부정반응보다 긍정반응의 영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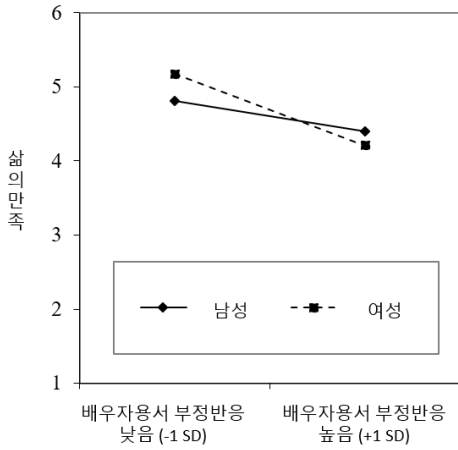


그림 1.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이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더 컸다.

성별의 효과를 살펴보면 삶의만족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04, $t=1.06, p>.05$), 배우자용서 부정반응과 삶의만족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11, $t=-2.29, p<.01$). 단순 기울기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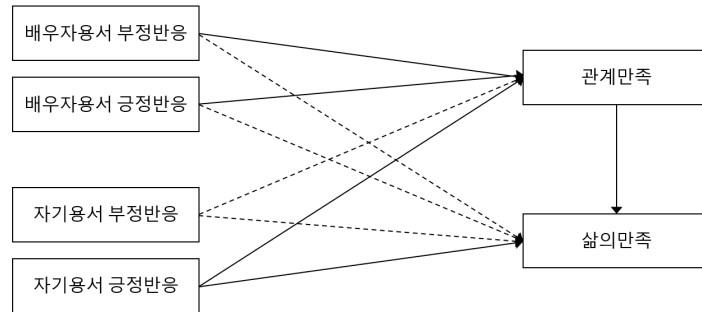
정 결과, 배우자용서 부정반응과 삶의만족 간에는 남성의 경우는 작은 크기의 부적 관련성이 있었고(기울기=-.25, $t=-2.12, p<.05$), 여성은 경우는 큰 크기의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기울기=-.59, $t=-4.90, p<.001$).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만족에 더 크게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연구가설4에서는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가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서는 그림 2에 제시한 변인과 경로에 더하여 결혼기간과 성별이 각 변인에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였으나, 그림 2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표 4에서도 관련 경로의 경로계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선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관계만족과 삶의만족 각각에 대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의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한편, 경로분석에서는 관계만족이 삶

표 4. 경로모형에서의 경로계수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t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 관계만족	-.50	.04	-14.42***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 관계만족	.20	.03	6.18***
자기용서 부정반응	→ 관계만족	.04	.05	0.82
자기용서 긍정반응	→ 관계만족	.15	.03	4.81***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 삶의만족	-.15	.08	-1.75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 삶의만족	.05	.07	0.77
자기용서 부정반응	→ 삶의만족	.03	.10	0.33
자기용서 긍정반응	→ 삶의만족	.26	.07	4.04***
관계만족	→ 삶의만족	.57	.09	6.73***

주. N=572. *** $p<.001$. 나이와 성별이 각 변인에 이르는 경로가 포함되었으나, 관련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주. 나이와 성별이 각 변인에 이르는 경로가 포함되었으나 그 림에는 표시하지 않았음.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그림 2. 용서가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만족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하였고, 변인간의 관련성에서는 성별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이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가 있기는 하지만 두 집단 모두 부적 관련성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및 자기용서 긍정반응은 각각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 = -.52, t = -14.42, p < .001$; $\beta = .21, t = 6.18, p < .001$; $\beta = .15, t = 4.81, p < .001$), 자기용서 부정반응은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beta = .03, t = 0.82, p > .05$). 한편 경로분석에서 관계만족이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beta = .35, t = 6.73, p < .001$), 삶의만족에 대한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및 자기용서 부정반응의 직접효과는 각각 유의하지 않았고($p > .05$), 자기용서 긍정반응만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beta = .16, t = 4.04, p < .001$).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및 자기용서 긍정반응이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간접효과를 산출하고 بوت스트랩 95% 신뢰구간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낮은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간접효과 = $-.18$,

표 5. 용서가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 분석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	효과크기	부트스트랩 95% CI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 관계만족	→ 삶의만족	-.18	-.25, -.12
배우자용서 긍정반응	→ 관계만족	→ 삶의만족	.07	.04, .11
자기용서 부정반응	→ 관계만족	→ 삶의만족	-	-
자기용서 긍정반응	→ 관계만족	→ 삶의만족	.05	.03, .09

주. N=572. 개별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는 간접효과를 산출하지 않았음.

CI: -.25, -.12), 배우자용서 긍정반응은 높은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간접효과=.07, CI: .04, .11). 이러한 결과는 관계만족이 배우자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자기용서 긍정반응도 높은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간접효과=.05, CI: .03, .09). 자기용서 긍정반응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는 관계만족은 자기용서 긍정반응과 삶의만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자신에게 잘못된 배우자를 용서하는 배우자용서와 배우자에게 잘못을 한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용서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때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를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이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고, 이들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배우자용서와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은 자기용서와 관계만족 간의 관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용서는 대인관계적 요소와 개인내적 요소를 둘 다 포함한다. 이 때 배우자와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배우자용서는 대인관계적 요소가 분명하고 관계만족과의 관련성이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배우자용서 부정반응, 배우자용서 긍정반

응, 자기용서 긍정반응이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그 중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용서가 자기용서에 비해서 관계만족을 더 잘 설명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커플을 대상으로 한 Pelucchi et al.(201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들도 자기용서에 비해서 파트너용서가 관계만족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타인용서 및 자기용서 경향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구혜진과 서미아(2017)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구혜진과 서미아(2017)는 중년기 여성의 타인용서와 자기용서 모두 부부적응과 관계가 있었고, 타인용서가 부부적응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잘못을 한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반응이 줄고 긍정반응이 증가하고, 또 배우자에게 잘못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반응을 회복할 때, 배우자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줄어들고 건설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계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raithwaite et al., 2011). 관계만족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이었는데,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분노를 표현하거나 관계로부터 철회하지 않을 때 상처를 준 배우자도 상호작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관계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기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련성은 배우자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련성에 비해서 더 클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이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배우자용서에 비해서 자기용서에는 상대적으로 개인내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는 삶의만족

은 자기용서와 관련성이 더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용서가 삶 전반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박종효, 김수경, 2017; 임주영, 2020; Hall & Fincham, 2005).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용서가 자기용서에 비해서 삶의만족에 대한 영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임주영, 2020; 정주리, 김은영, 2019)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주영(2020)의 연구에서 자기용서는 타인용서 경향에 비해서 삶에 대한 태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주리와 김은영(2019)의 연구에서도 상태자기용서는 특질타인용서에 비해서 삶의만족과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의 차이는 선행연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타인용서와 자기용서를 연구한 반면, 본 연구에는 부부관계에서의 잘못에 대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를 측정하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서 경향성과 배우자용서 간의 관련성의 크기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Fincham et al., 2015), 본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타인용서 경향성이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배우자용서가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함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용서 경향성이나 많은 대상과 상황을 포함하는 상태자기용서에 비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용서가 삶의만족과의 관련성이 낮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특질용서와 부

부용서를 하나의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삶의만족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용서의 긍정반응에 비해서 용서의 부정반응이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을 더 크게 설명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용서는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을 포함하는데, 연구자들은 부정반응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반응이 높은 것은 아니며(Pelucchi et al., 2013; Rye et al., 2001), 두 가지가 각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Rye et al., 2001). 선의나 신뢰와 같은 긍정반응에 비해서 회피나 비난과 같은 부정반응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잘 전달되기 때문에(Fincham et al., 2006; Gordo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부정반응이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배우자용서에서는 지지되었으나 자기용서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배우자용서 부정반응과 긍정반응 모두 관계만족을 설명하였고, 긍정반응에 비해서 부정반응이 관계만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Gordon et al.(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그들은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용서 긍정반응에 비해서 부정반응이 관계만족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Fincham et al.(2006)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데, 그들은 남편의 경우 자비에 비해 보복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배우자용서의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이 관계만족과 관련이 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보고한 Paleari et al.(2009)의 연구나 Pelucchi et al.(2015)의 연구

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용서 긍정반응에 비해서 부정반응은 삶의만족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Palcari et al.(2009)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배우자용서 긍정반응에 비해서 6개월 후의 삶의만족과 더 큰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동일한 시점에서의 배우자용서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둘 다 중간크기로 보고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용서 부정반응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자기용서 긍정반응은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elucchi et al.(2015)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용서 부정반응은 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반면, 자기용서 긍정반응은 관계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만족의 저하나 삶의만족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배우자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부정적 생각에 몰두할 때 관계에서 철회하게 되고 부부간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정한 자기용서는 거짓용서와는 달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태도는 보상행동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김병직 등, 2013; 박종효, 김수경, 2017), 자기용서 부정반응이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기용서 긍정반응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수경과 박종효(2020)은 자기용서가 화해 소망, 타인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대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부부관계에서의 자기용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첫째, 자기용서를 통하여 화해하려는 노력은 상처입은 배우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화해를 수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자기용서를 하게 될 때 배우자의 감정, 행동, 생각, 상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자기용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는 긍정적 부부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자기용서 긍정반응은 삶의만족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므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수경, 박종효, 2020).

넷째,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가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만족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우선, 배우자용서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이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만족이 완전매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을 용서하는 경향성이 삶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만족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보고한 임주영(2020)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임주영(2020)의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용서 경향성을 측정했기 때문에 관계만족이 용서와 삶에 대한 태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용서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관계만족이 용서와 삶의만족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를 통하여 관계만족이 개선될 때에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삶의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전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이 개인의 안녕과 정적 관련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Gordon et al., 2020), 본 연구 결과는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자관계용서가 용서 특질과 구분되며, 각각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자기용서 긍정반응과 삶의만족은 관계만족이 부분매개 하였는데, 자기용서 긍정반응은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관계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배우자용서와는 달리 배우자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용서는 관계만족을 매개로 삶의만족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삶의만족을 증진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용서는 대인관계적 요소가 강하고, 자기용서는 개인내적 요소가 강하다는 연구자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구혜진, 서미아, 2017; Hall, & Fincham, 2005).

다섯째,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에는 성차가 있었는데, 용서의 부정반응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였고 긍정반응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배우자용서의 부정반응과 자기용서의 부정반응에서 성차는 다른 방

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인데,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높았고 자기용서 부정반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타인용서가 높다는 박종효(2012)의 연구와는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타인용서가 높다고 보고한 Miller et al. (2008)의 연구 결과나 자기용서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선행연구(박종효, 2012; 박종효, 김수경, 2017; Davis et al., 2015)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용서가 부부관계에서의 용서인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용서 특질을 연구하였다는 점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관계에서 타인용서와 자기용서 방식이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커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여성이 높고 자기용서 부정반응은 남성이 높은 것은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아내가 상처를 더 크게 받고 부정적 정서, 생각, 행동을 더 많이 하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남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더 큰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용서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남성과 여성의 삶의만족에 모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삶의만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Busby et al.(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Fincham et al.(2015)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Busby et al.(2019)은 여성의 용서가 남성의 용서에 비해서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유

사하게, Fincham et al.(2015)은 용서 경향성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서 남편의 경우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고, 아내의 경우는 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심리적 상처와 부정적 반응이 전체 삶의 만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여성의 경우에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관계 중심적이라는 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다음으로는 연구의 학문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라는 이차관계에서의 용서를 연구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용서는 수준 따라 특질용서, 특정 잘못에 대한 용서 및 이차관계용서로 구분 될 수 있는데(McCullough et al., 2000), 이차관계용서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함으로써 용서 연구를 확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용서뿐만 아니라 자기용서를 포함하여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자기용서는 타인용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적게 받았는데,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용서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가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직, 간접효과를 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를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으로 구분하여 연구함으로써 용서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 간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용서는 부정반응의 감소와 긍정반응의 증가를 포함하는데 이를 합하여 하나의 점수로 산출할 때는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의 상대적 효과를 알기 어렵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용서의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이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용서척도가 용서를 잘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정반응과 긍정반응의 문항수와 반응의 내용을 균형 있게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용서에서의 성차와 용서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차를 살펴봄으로써 성차의 명료화에 일조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용서 연구에서 성차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상담 실체에 함의하는 바를 논의할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증거기반 부부상담의 학문적, 임상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혼성인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 대표적으로 Enright의 용서심리과정모형(강주희, 박종효, 2014; Enright et al., 1996)이나 정서중심 치료를 바탕으로 한 커플용서모형(Woldarsky Meneses, & Greenberg, 2011; Zuccarini et al., 2013)을 활용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나 정서에서 회복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여기서는 용서모형을 적용하여 부부문제를 상담할 때, 상담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부상담에서 상담자는 잘못을 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잘못을 한 자기자신을 용서를 위한 탐색과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커플용서 프로그램은 배우자용서에 초점을 맞추는데, 본 연구 결과는 배우자용서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잘못된 사건에 대한 자기용서도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서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용서개입을 통하여 배우자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관계만족이 증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신리나, 김득성,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상담 프로그램에서 배우자용서에 더하여 자기용서를 훈련하고 촉진시킴으로써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자는 부부가 배우자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희생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더하여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잘못의 원인과 동기를 이해하고 이를 상호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Ruffing et al., 2017). 또한 상담자는 배우자에게 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배우자의 상처를 탐색하고 이를 치유하고 보상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잘못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반응을 탐색하고 인정하며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는 상처 받은 배우자가 부정적 반응을 충분히 탐색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용서 프로그램은 크게 부정적 태도의 감소와 긍정적 태도의 증가를 위한 개입을 포함한다. Enright et al.(1996)의 용서의 단계는 부정반응이 우세한 단계에서 긍정반응이 우세한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을 발현단계,

결정단계, 작업단계, 결과단계로 구분하였고, Woldarsky Meneses와 Greenberg(2011)는 용서의 단계를 상처의 단계적 축소 단계, 용서와 화해 단계, 공고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이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내담자를 상담할 때,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에 앞서 수치심, 죄책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수용하는 용서의 초기 단계(발현단계, Enright et al., 1996; 단계적 축소단계, Woldarsky Meneses, & Greenberg, 2014)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잘못이 심각할수록 부정적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는 고통과 상처를 충분히 탐색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Gordon et al., 2020).

셋째, 효과적인 부부상담을 위해서 상담개입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용서 부정반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자기용서 부정반응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높았다. 부부상담에서 배우자의 잘못과 관련된 부정적 반응을 다룰 때는 아내의 경우보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잘못과 관련된 부정적 반응을 다룰 때에는 남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충분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용서의 부정반응이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의 경우에 더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개입 방향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상담자가 용서과정에서의 성차를 인식하고 교육함으로써 이러한 차이로 인한 이차적 부정반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배우자

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 기술한 학문적 의의와 상담 실제에 대한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제한점을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기술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용서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기는 어렵다. 선행 중단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부부관계에서의 용서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Fincham, 2020), 반대로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이 높을 때 용서가 촉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Fincham et al., 2006). 또한 관계만족과 삶의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이들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중단연구를 통해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하여 자기보고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잘못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응답하였다. 용서 시나리오를 활용한 연구, 실험연구, 관찰평가 및 행동조사로 회고적 자기보고 설문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McCullough et al., 2000). 또한 용서 과정은 상호주관적 경험으로(Ruffing et al., 2017), 배우자의 관점이나 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박종효, 2012; Roberts et al., 2021), 커플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자기보고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부부의 용서 상호작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잘못의 종류, 잘못의 심각도, 잘못의 지속기간, 잘못의 빈도를 살펴

보지는 않았다. 연구자들은 물리적 폭력이나 의도와 같은 잘못을 한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Fincham et al., 2006), 용서 경향성이 높고 성급하게 용서할 때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갈등이 지속되고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Fincham et al., 2006; Gordon, et al., 2020).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잘못을 하는 빈도도 용서와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incham, 2020). 추후 연구에서는 잘못의 종류, 지속기간, 빈도를 포함하여 용서가 관계만족과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잘못의 심각도나 지속기간이 타인용서나 자기용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고(Fehr et al., 2010), 추후 연구에서는 잘못의 심각도와 지속기간도 포함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용서와 관계만족 및 삶의만족 간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용서와 자기용서에 관한 것으로, 이 결과를 미혼 커플에게 적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미혼커플은 부부에 비해서 잘못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하는 등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Sheldon, & Antony, 2019), 이는 미혼커플은 용서를 실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참고문헌

강주희, 박종효 (2014). 가정폭력 피해여성들

- 위한 용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상담학연구*, 15(6), 2245-2267.
- 곽민하, 전해성 (2016). 부부갈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및 용서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4(3), 339-359.
- 구재선 (2019).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의 연령 및 성별 측정 동일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4), 305-232.
- 구혜진, 서미아 (2017). 중년기 여성의 애착 손상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01-418.
- 김병직, 이동귀, 김지근, 김운상, 황정은 (2013). 자기용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4(2), 973-993.
- 김수경, 박종호 (2020). 대학생의 가해 관련 심리 행동적 특성과 대인관계회복 간의 관계: 진정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 탐색 연구. *인간발달연구*, 27(1), 61-84.
- 박종호 (2012). 용서,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 탐색. *교육심리연구*, 26(4), 927-949.
- 박종호, 김수경 (2017). 진정한 자기용서에 대한 탐색: 거짓 자기용서와 처벌적 자기용서와의 차별성. *교육심리연구*, 31(4), 589-613.
- 배미자 (2003). 부부갈등대처 및 용서와 결혼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배소현 (2010). 한국판 자기용서상태척도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 신리나, 김득성 (2013). 중년기 아내를 위한 남편 용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3-23.
- 오영희 (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99-813.
- 이민식, 김중술 (1996).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29-140.
- 임주영 (2020). 노인의 자기용서와 타인용서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부부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4, 165-191.
- 정성진 (2011). 용서과정 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정주리, 김은영 (2019). 불안정 애착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와 타인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1187-1204.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 현, 최승미, 오현주, 권정혜 (2011). 한국판 부부적응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55-670.
- Bono, G., McCullough, M. E., Root, L. M. (2008). Forgiveness, feeling connected to others,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2), 182-195.
- Braithwaite, S. R., Selby, E. A., & Fincham, F. D. (2011). Forgive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 Family Psychology*, 25(4), 551-559.
- Busby, D. M., Day, R. D., & Olsen, J. (2019). Understanding couple shared reality: The case of combined couple versus discrepancy assessments in understanding couple forgivenes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1), 42-51.
- Davis, D. E., Ho, M. Y., Griffin, B. J., Bell, C., Hook, J. N., Van Tongeren, D. R., DeBblaere, C., Worthington, E. W., & Westbrook, C. J. (2015). Forgiving the self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329-33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11). 용서 심리학: 내담자이 분노 해결하기. 서울: 시그마프레스.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원전은 2000년에 출판)
- Enright, R. D.,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2), 107-126.
- Fehr, R., Gelfand, M. J., & Nag, M. (2010). The road to forgiveness: A meta-analytic synthesis of its situation and dispositional correlates. *Psychological Bulletin*, 136(5), 894-914.
- Fincham, F. D. (2020). Forgiveness in marriage. In E. L. Worthington, Jr., & N. G. Wade (Eds.). *Handbook of forgiveness* (2nd ed.). (pp. 142-152). New York, NY: Routledge.
- Fincham, F. D., Beach, S. R., & Davila, J. (2004). Forg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1), 72-81.
- Fincham, F. D., Hall, J., & Beach, S. R. H. (2006). Forgiveness in marriag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amily Relations*, 55(4), 415-427.
- Fincham, F. D., May, R. W., Sanchez-Gonzalez, M. A. (2015). Forgiveness and cardiovascular functioning in married couples. *Couple and Family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1), 39-48.
- Gordon, K. C., Amer, Z., Lenger, K. A., Brem, M. J., Baucom, D. H., & Snyder, D. K. (2020). Forgiveness and the dark side of intimate relationships: Infidelity,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divorce. In E. L. Worthington, Jr., & N. G. Wade (Eds.). *Handbook of forgiveness* (2nd ed.). (pp. 153-163). New York, NY: Routledge.
- Gordon, K. C. & Baucom, D. H. (2003). Forgiveness and marriage: Preliminary support for a measure based on a model of recovery from a marital betrayal.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3), 179-199.
- Gordon, K. C., Hughes, F. M., Tomcik, N. D., Dixon, L. J., & Litzinger, S. C. (2009). Widening spheres of impact: The role of forgiveness in marital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1-13.
- Hall, J. H., & Fincham, F. D. (2005). Self forgiveness: The stepchild of forgiveness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 Psychology*, 24(5), 621-637.
- Kachadourian, L. K., Fincham, F., & Davila, J. (2004). The tendency to forgive in dating and married couples: The role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11(3), 373-393.
- Kaletka, K., & Mróz, J. (2018). Forgiveness and life satisfaction across different age groups i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0, 17-23.
- Karremans, J. C., & Van Lange, P. A. M. (2004). Back to caring after being hurt: The role of forgiven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2), 207-227.
- McCullough, M. E., Bellah, C. G., &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5), 601-610.
- McCullough, M. E., Hoyt, W. T., & Rachal, K. C. (2000). What we know (and need to know) about assessing forgiveness constructs. In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 C. E. Thoresen (Ed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299-319). New York: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Miller, A. J., Worthington, E. L., Jr., & McDaniel, M. (2008). Forgiveness and gender: A meta-analy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8), 843-878.
- Myers, D. 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1), 56-67.
-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09). Measuring offence-specific forgiveness in marriage: The marital offence-specific forgiveness scale (MOFS). *Psychological Assessment*, 21(2), 194-209.
- Pelucchi, S.,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13). Self-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It matters to both of u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541-549.
- Pelucchi, S.,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15). Self-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2. Impact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Family Science*, 6(1), 181-190.
- Pelucchi, S., Regalia, C., Paleari, F. G., & Fincham, F. D. (2017). Self-forgiveness within couple transgressions. In L. Woodyatt, E. L. Worthington, Jr., M. Wenzel, & B. J. Griffin (Eds.), *Handbook of psychology of self-forgiveness*. (pp. 115-130). Cham, Switzerland: Springer.
- Preacher, K. J., Curran, P. J., & Bauer, D. J. (2006). Computational tools for probing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ultilevel modeling, and latent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1(4), 437-448.
- Roberts, K. R., Jaurequi, M. E., Kimmes, J. G., & Selice, L. (2021). Trait mindful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ole of forgiveness among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7(1), 196-207.

- Ruffing, E. G., Moon, S. H., Krier, J., Paine, D. R., Wolff, E., & Sandage, S. J. (2017). Self-forgiveness in couple and family therapy. In L. Woodyatt, E. L. Worthington, Jr., M. Wenzel, & B. J. Griffin (Eds.). *Handbook of psychology of self-forgiveness*. (pp. 193-206). Cham, Switzerland: Springer.
- Russell, V. M., Baker, L. R., McNulty, J. K., & Overall, N. C. (2018). "You're forgiven, but don't do it again!" Direct partner regulation buffers the costs of forgivenes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2*(4), 435-444.
- Rye, M. S., Flock, C. D., Heim, T. A., Olszewski, B. T., & Traina, E. (2004). Forgiveness of an ex-spouse: How does it relate to mental health following a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3/4), 31-51.
- Rye, M. S., Loiacono, D. M., Folck, C. D., Olszewski, B. T., Heim, T. A. & Madia, B. P. (2001).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wo forgiveness scales.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20*(3), 260-277.
- Sheldon, P., & Antony, M. G. (2019). Forgive and forget: A typology of transgressions and forgiveness strategies in married and dating relationship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83*(2), 232-251.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5-28.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N., & Billings, L. S.,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S., Roberts, J. C., & Roberts, D. E.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2), 313-36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ohl, M. J. A., DeShea, L., & Wahkinney, R. L. (2008). Looking within: Measuring state self-forg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40*(1), 1-10.
- Woldarsky Meneses, C., & Greenberg, L. S. (2014).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emotion focused couple therapy: Relating process to outcom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0*(1), 49-67.
- Zuccarini, D., Johnson, S. M., Dalgleish, T. L., & Makinen, J. A. (2013).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emotionally focused therapy for couples: The client change process and therapist interven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9*(2), 148-162.

원 고 접 수 일 : 2022. 02. 11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4. 08
게재결정일 : 2022. 06. 14

Effects of Negative and Positive Responses of Spous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Young-ju 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negative and positive responses of spouse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gender differences in these relationships.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572 adults.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ssociation between spouse forgive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stronger than the association between self-forgive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there was a slightly stronger association between spouse forgiveness and life satisfaction than between self-forgivenes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both negative and positive responses of spouse forgiveness, and only positive response of self-forgivenes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Fourth, relationship satisfac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giveness and life satisfaction. Fifth, gender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response of spouse forgiveness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its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Spouse Forgiveness, Self-Forgiveness, Negative Response, Positive Response, Relationship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